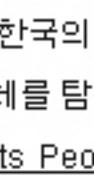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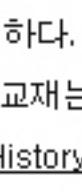


2014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 UCC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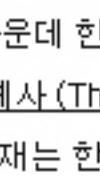
구 분	소재	세부 내용
에세이 부문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자료(외국 교과서 포함)에 나타난 한국이미지 - 외국에서의 한국이미지 제고 방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UCC 부문	한국바로알리기	-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문화관련 창작 동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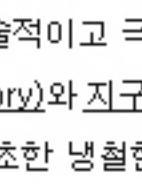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 설명 및 1차 자료 파악: 외국 교재에 한국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기술할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 국가가 속한 대륙 전반의 역사적 동향을 제쳐두고, 해당 국가의 역사만을 살펴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흔히 중국의 신하 국가 아니면 다른 동아시아 문명의 문화적 영향은 전혀 받지 않은 채 철저하게 독립적인 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외국 교재들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러한 비학술적이고 극단적인 인식들 간의 미묘한 매개체를 탐구하는 데 기여한 교재는 바로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와 지구와 인류: 지구사 (The Earth and Its Peoples: A Global History)이다. 이를 교재는 한국이 인간적 공감에 기초한 냉철한 근거를 토대로 고찰할 수 있는 유산을 지닌 문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희망적이기는 하나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지구와 인류 (The Earth and Its Peoples)에는 8세기까지의 한국사가 불과 몇 문단으로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다. 수많은 세계 문명에 관해 기술해야 하는 저자들의 입장장을 감안하면 이해 가능한 상황이지만, 8세기 이전 한국의 신앙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묘약하고 있다. “[한반도의 3세기 문화에는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샤머니즘 [...] 그러나 한국은 유교와 불교를 빠르게 수용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초기 신앙체계를 일괄하여 “샤머니즘”이라고 범주화하는 것은 역사적 환원주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앨런 헤이먼 (Alan Heyman)이 무당가(巫堂歌)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샤머니즘”은 이른바 ‘국교(國敎)’ 영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의식을 [...] 포함하는 표현이 되었다 [...]”. 또한, 이 교재의 저자들은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가 본질적으로 서로 전혀 다른 신앙체계로서 한반도에 도입되어 서로 별개로 작용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융합 전통의 역사를 감안하면, 철저하게 연구할 경우 이 신앙체계들이 그 발전 과정에서 결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안일한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한국 역사상 주요 시대들에 대한 지나치게 짧은 설명도 해당 시대의 가장 궁핍하고 취약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구와 인류 (The Earth and Its Peoples)의 저자들은 한반도 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6세기 무렵 엄격한 계급제도의 발생에 관해 기술한다. “500년대 초에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왕국인 신라에서 지배적인 토지소유 가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타고난 지위를 영구화하는 제도 즉, ‘골품 제도’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신라 귀족 외에 다른 계층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아마도 1차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저자들은 신라인의 일상 생활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불과 한두 개 문장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 이전 한국사도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저자들은 한국사를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독자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무턱대고 자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 교재의 초기 한국사에 관한 2개 페이지는 주제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교재의 편집자들은 “고려”가 “코리아”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이 왕조를 굵은 활자체로 표기했다. 그러나 곧 알 수 있듯이, 한국 인쇄술에 관한 섹션에서 몇 개 용어를 이처럼 강조했다라면, 그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한국사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교재들은 세계 문명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구와 인류 (The Earth and Its Peoples)의 저자들은 아시아의 목판인쇄술에 관한 흥미로운 논제를 제시한다. “목판인쇄술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적 교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다음, 한-중 문명에 의해 발전된 인쇄 공정 단계들에 대해 짧지만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의 저자들은 한국의 15세기 표음 문자 발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리한 견해를 제시한다. “[한글]은 결국 [...] 개인적인 서신과 대중 소설 출판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춘 학술적 논의가 한국에 관한 외국 교재의 일부 보충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간혹 칭찬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한국을 다른 강국들에게 무력하게 굴종하는 국가로 묘사하는 구태의연한 관점을 고집하고 있는 교재들이 있다. 한국이 타국에 예속되었던 시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의 편집자들이 조선 왕조 (1392-1910년) 섹션 전체를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한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섹션의 도입부에 한 가지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조선] [...]의 발전은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달성한 업적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오직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미심쩍은 전제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지배를 위한 일본과 중국 간의 1894년 전쟁에 관한 섹션에서는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집필된 2건의 1차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역사를 흥미롭게 접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면, 그 1차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환영할 만한 보충 자료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한국 영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관한 1차 자료를 제외시킴으로써 부당하게 한국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소리 없는 방관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조선이 자주적으로 달성한 업적과 중국-일본의 문화적 영향에 기원한 업적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를 상기시킨다. 분명하고 자세한 기술은 특히 근대사를 연구할 때 필요하다.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는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소련과 미국]은 분래, 평화를 회복한 후 독립 정부 하에 전국 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을 재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미-소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에는 2개의 정부 즉, 북쪽의 공산주의 정부와 남쪽의 반공산주의 정부가 출현했다.” 이 문단을 통해, 독자는 한반도에서 2개의 정부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지하지만, 이를 정부가 다른 정치 조직 즉, 자유 선거에 의해 수립된 남쪽의 정치 조직과 단순히 소련의 허가로 수립된 북쪽의 정치 조직을 토대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결코 알지 못한다.

단지 사소한 트집잡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한국 전쟁 발발 무렵의 정치사를 논의함에 있어 잠재된 심각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서구의 관점에서, 대학 수준의 역사 교육은 지루한 날짜와 통계 보다 폭넓은 개념에 대한 교육을 선호한다. 따라서 한국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대리전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은 교재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공된 얼마 안 되는 분명한 진실을 인지할 수 없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를 읽은 대학생이 남한은 물론 북한 정권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잘못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외국 교재에 한국 관련 자료를 기증하는 이들이 한국 문화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목판인쇄술과 한글에 대한 논의가 한반도의 창조적 성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또한 한국인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하는 저자들이 있다. 그 기술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상상 속 한국 (즉, 사실상 한반도에 전혀 와보지 않은 이들이 만들어 낸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다양한 이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천주교 역사는 한국인의 열정적 결의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인 난민 또는 망명자 역사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에는 세계로부터 고립된 18세기 한국에 대한 역사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은 한반도에 도착한 유럽 상인 (기독교도) 및 선교사들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았다 [...]”. 이러한 견해는 한국에서 최초의 토착 한국인 천주교 교도들이 나타나기 전에 16세기 하데요시의 침략으로 포로가 된 이들과 그 후손이었던 수천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2세기에 걸친 한국 기독교 역사 전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 망명한 한국인 천주교도들의 역사는 어떻게 한국인들이 한반도와 끌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신앙 체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한국 문화의 명맥을 이어갔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1596년 나가사키에 있는 한 무리의 개종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예수회 서신이 있다. “신부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저희는 전쟁 포로여서 어제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저희 죄에 대한 용서를 기원하기 위해 지금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11 이 한국인들은 현세의 포로 신세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바람과 꿈,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억류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기 위한 정신적 세계를 발견했던 것이다.

만약 초기 한국 개종자들에 대한 종교적 증거가 외국 교재 편집자들에게 흥미롭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를 대체할 자극적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전쟁 기간 및 그 직후에 한반도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권에서 달아나기 위해 노력했던 한국인들이 이야기는 이러한 탈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질적 사고 방식에 대한 대단히 흥미로운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1차 자료를 토대로 이 탈출에 대해 연구할 경우,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존 오브라이언 (John O'Brien)이 “국교를 신봉하지 않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기술한 사람들의 범주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학술적으로 숙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2 학술적 관점에서, 교재에 한국 전쟁 동안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도망치는 피난민들이 쓴 편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성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근거한 이유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국 관련 교재 편집자들이 이 피난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주제상 공간 및 역사적으로 펑크 받는 소수자의 역사와 유사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독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난민과 더 나아가 한국 그 자체의 역사를 폭넓고 얕은 대안 인류의 뿌리 깊은 끝없는 저항의 맥락에서 바라 볼 것이다. 그러한 섬세한 관점은 생동감 있는 논의의 주제로서 한국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필수 세계사 (The Essential World History) 및 지구와 인류: 지구사 (The Earth and Its Peoples: A Global History)와 같은 교재에는 사상적 변화 (샤머니즘, 불교, 유교)와 중국 및 일본과 같은 국가들로부터의 끊임 없는 침략 전쟁을 겪었던 한국 문명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대체로 그 내용이 맞지만, 이러한 기술은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들일 한국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장구한 역사에 걸쳐 심각한 외부 압력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적 활기를 제공해 왔다. 한국 역사를 인도적인 맥락에서 기술한다면, 오늘날 여전히 청중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한국의 문명 세계를 매우 생생하게 상기시킬 것이다.